



10면

"영혼까지 투입해 공공시설 사수" 완주군, 방역관리 강화 나서기로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0년 11월 27일 금요일 (음 10월 11일) 제2667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책상마다 가림막 · 마스크는 필수 · 확진자 위한 병원시험장...

## 코로나로 확 달라진 수능 풍속도

### 북도감독관 체온측정 등 거리두기 유지업무 수행 방역담당관·응급구조사 배치... 수험생 특별관리

코로나19가 대학수학능력시험 문화도 바꿨다.

우선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수험생 전원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한다. 더불어 원격수업 기간(11월 28일~12월 1일)을 활용해 수험생 책상마다 가림막을 설치한다.

또한 시험 당일 발열이나 심한 기침 등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을 두고, 확진자를 위한 병원시험장도 군산 의료원에 마련했다.

코로나19라는 심각성을 고려해 방역담당관 및 응급구조사를 배치, 수험생들을 특별 관리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북도감독관을 뒤 휴식시간마다 창문을 열어 환기 시키고, 체온 측정 및 화장실 대기 시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28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업무처리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도교육청은 수능 시험 종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는 등 학교 방역과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도내 수능 응시생은 1만7,158명으로, 전년도 1만9,158에 비해 2,000명 줄었다. 시험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6개 시험지구 및 군단위 88개 시험장(별도시험장 6개 포함) 759개 시험실에서 치러진다. 단, 코로나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운영 요원은 4,678명으로 시험장 운영요원 1,655명, 시험감독관 2,678명, 호송경비경찰 및 응급구조사 342명이다

특히 청각, 지체, 뇌병변 운동장애 학생 등 특별관리대상자 19명은 동양체육고에서 시험을 치르게 되며, 뇌병변 등 운동장애 학생은 일반 학생의



김승수 전주시장은 28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을 포함한 예결소위원들과 기재부 및 국회사무처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1.5배 시험시간이 주어진다.

수험생 예비소집은 오는 12월 2일 오전 10시 각 고사장별로 실시하며, 수험표는 원서를 접수했던 출신고등학교나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개별접수자)에서 배부한다.

방역상황 유지를 위해 수험생의 건물 내 입장을 금지한다.

필요한 안내는 거리두기를 한 상태에서 별도 장소를 활용하며,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수험생은 수험표 교부 시 배부되는 수험생 유의사항 및 동영상을 통해 답안 작성 방법, 마스크, 책상용 가림막, 점심도시락 및 음료 준비 등 안전점검 내용 등을 사전 숙지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이 필수며, 시험장에서 음료 제공이 금지돼 있으므로 본인이 마실 수 있는 음료를 반드시 준비해야 한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및 확진자는 해당 수험생의 직계 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친인척, 담임교사 등)가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수험표를 대리 수령하면 된다. 수능 성적은 12월 28일 발표할 예정이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입실 가능하며,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이날 신분증(주민등록증, 청소년증, 여권, 학교장 발급 학생증)과 수험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도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본도 내놓는다. 시험 당일 급속탐지기를 이용해 반입금지 물품을 점검하고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 워치 등), 디지털 카메라, 전자사전, MP3 플레이어, 카메라렌즈,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통신·결계기능(블루투스 등)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LED 등)가 있는 시계, 전자담배, 통신(블루투스)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

모든 전자기기이며 통신·결계기능, 전자식 화면표시기 없는 시침, 분침(초침)이 있는 아날로그 시계는 반입 가능하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험생 부정행위에 대해 사전예방을 최우선으로 해 안내하고 있다"며, "88개 시험장에 3단계에 걸친 시험장 방송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능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시험장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수험생이 남은 기간 동안 심신의 안정을 취하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격려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은성기자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토·일요일 신문 쉼니다.

## 국비 '한 푼이라도 더'

김승수 전주시장, 막판까지 '총력'

김승수 전주시장이 국회 예산안 처리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을 앞두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막바지 총력전을 펼쳤다.

김승수 시장은 28일 국회를 방문해 예결위 간사인 박홍근 의원과 윤준병 의원을 포함한 예결소위원들과 기재부 및 국회사무처 관계자 등을 만나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 등 주요 사업을 설명하며 내년도 국가예산 반영을 요청했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으로 재성이 필요한 구 법원검찰청 부지에 추진되는 한국문화원형 콘텐츠 체험·전시관 건립(15억 원)과 전주 로파크 건립(10억)을 비롯해 드론 스포츠복합센터 건립(20억), 전주 푸드 허브센터 건립(40억), 전주 문화체육교육지원센터 지정(5억) 등 신규 사업 예산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전주독립영화의 집 건립(16.5억) ▲전주승화원 및 봉안당 현대화(5억) ▲치명자성지 세계평화의 전당 건립(5억) 등 계속 사업 예산 확보의 당위성도 피력했다.

김 시장은 이어 최상대 기재부 총괄심의관 등 간부공무원과 조의섭 국회사무처 예결위 전문위원 등을 만나 예결위 심사 시 전주시 사업 예산의 증액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요청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되는 등 국비활동에 어려움이 있지만 최소 인원으로 막바지 국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 군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가파른 한자증가 추세 탓

전북도는 오는 28일 0시를 기해 군산시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조치를 시행하기로 협의·결정하고,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 강력 조치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현재 코로나19의 지역유행이 급속한 전파경로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하고, 전주·익산시는 지난 21일부터, 나머지 12개 시군은 지난 23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군산시는 김장모임을 기점으로 직장·어린이집, 유치원, 고등학교 등에서 3~4일 사이 30여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에 상황의 심각성,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고려해 한시라도 빨리 고강도로 감염 확산을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군산시 및 중앙안전대책본부와 2단계 격상 방안을 협의·결정하게 됐다.

군산시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는 28일 0시부터 별도 명령시까지 10일간 시행된다.

불필요한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을 자제해 달라는 것이 핵심 메시지이다.

2단계 격상에 따라 1.5단계와 달라지는 주요 방역조치로는 중점관리시설 중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 조치, 노래연습장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점은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하고, 카페는 영업 시간 전체에 대해 포장·배달만 허용하며, 시설 내 음식·음료 섭취를 금지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이용인원 제한이 확대돼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 헬스장, 당구장, 스크린골프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음식 섭취 금지되고,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개별 결혼식·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 외에도 100인 이상의 모임·행사는 금지되며, 공공시설은 50%~80%, 사회복지시설은 전면허용~60%, 종교활동은 좌석수의 30%~20%로 인원이 제한된다. /유호성 기자

**일터, 삶터, 쉼터가 어우러지는 명품 안주테크노밸리 제2일반산업단지 분양**

완주군 입지 보조금 **분양가 최대 10% 지원!**

전라북도 투자 보조금 **최대 300억 한도 지원!**

완주군 입지관리과 ☎ 063)290-2412  
안주테크노밸리(주) ☎ 063)229-7417

주거용지, 산업용지, 익산IC, 호남고속도로, 절찬리 분양중